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20.3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유동영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 2020 / 3

##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자연으로부터 배우다

산방한담	04	눈 속에 매화 피다
일기일회	08	추위가 빼에 사무치지 않으면 매화 향기 어찌 얻으랴
자연으로부터 배우다	15	자연으로부터 배우다
스님 평안하소서	24	스님 하루 속히 돌아오십시오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28	꽃은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맡긴다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29	독대의 시절
법정 스님의 숨결	34	철부지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38	번민하고 사색하여라
법정 마음의 온도	40	생명을 존중하라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3월 1일 발행 / 통권 301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눈 속에 매화 피다

글·법 정(法 頂)

이 깊은 겨울, 오두막 지붕 아래 살아 있는 생물은 나하고 한그루 매화분<sup>盆</sup>뿐이다. 살아 있는 것끼리 마주 보면서 이 겨울을 지내고 있다. 곁에 화분이 하나 있으니 혼자서 지내는 것 같지가 않다. 내 마음과 눈길이 수시로 가면서 보살피다 보면 지붕 밑이 훈훈하고 따뜻하다.

바깥은 영하 18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추위인데도 '두 식구'의 둘레는 늘 훈훈하다.

이 매화분은 작년 겨울도 나와 함께 지내면서 그 꽃과 향기로 오두막을 가득 채워 주었었다. 양재동 꽃시장에서 구해온 것인데, 꽃을 보고 나서 화분째 흙에 묻어 두었다가 늦

가을에 집안에 들여놓았다. 차 찌꺼기 삭힌 물을 가끔 주었을 뿐 따로 거름은 주지 않았다.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낮에는 방안에 들여놓아 창호로 비쳐드는 햇볕을 쬐어 주고 밤으로는 대청마루에 내놓았다.

지난 1월 초순, 양철지붕에 सर락 눈 뿌리는 소리가 들리던 날, 매화는 마침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청초한 꽃과 은은한 그 향기로 함께 사는 식구의 가슴을 맑고 향기롭게 채워 주었다. 식물은 공을 들인 만큼 보답을 한다. 결코 은혜를 등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날부터 열네 송이의 꽃이 차례 차례 피어났다. 눈 속에 피어난 이런 매화를 설중매雪中梅라고 한다. 봄소식을 알린다는 뜻으로 일지춘一枝春이라고도 하고, 맑은 손님에 견주어 청객淸客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꽃 빛깔이 희고 그 자태가 고결하다고 해서 매화를 일명 옥골玉骨이라고도 한다.

매화에도 백매, 홍매 등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꽃받침이 연초록인 단엽單葉 청매靑梅가 그 중 귀하다. 이를 벽매碧梅라고도 하는데, 옥색이 감돌 만큼 꽃이 희고 그 향기 또한 다른 매화보다 훨씬 격이 높다. 특히 분에 기르는 매화는 단연 이 청매를 으뜸으로 친다.

소식蘇軾은 그의 매화성개梅花盛開에서 이렇게 읊었다.

**남해의 신선이 사뿐히 땅에 내려  
달빛에 흰옷 입고 와서 문을 두드리네**

매화를 신선에 견준 발상도 발상이지만 그 신선이 흰옷을 입고 찾아와 달밤에 문을 두드리다니 한 폭의 그림 같은 정감이다. 옛사람들은 한 그루 화목花木을 통해서 이렇듯 삶의 운치와 풍류를 누릴 줄 알았다.

육개陸凱는 매화 가지를 꺾다가 우연히 역부驛夫(옛날의 배달부)를 만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새로 핀 매화를 보내면서 이런 시를 남기었다.

**매화 가지를 꺾다가 역부를 만나서  
몇 가지 묶어서 멀리 계신 그대에게 보내오**

**강남에 별로 자랑할 게 없어서  
오로지 한 가지 봄을 드리오.**

한 가지 봄은 일지춘一枝春을 옮긴 말인데, 일지춘 쪽이 매화의 분위기에 어울린다.

다른 꽃도 그렇지만 특히 매화는 고목의 가지에서 부풀어 오르고는

그 꽃망울이 좋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기대감에 부풀 때의 그것처럼, 꽃도 피어나기 직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그 꽃망울에, 꽃보다 진한 충만감이 깃들여 있다.

매화는 원산지가 중국의 남쪽인데,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매화에 네 가지 귀함四貴이 있다고 전한다. 드문 것을 귀하게 여기고 무성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묵은 노목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 나무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찐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꽃망울을 귀하게 여기고 피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매화에만 해당될 귀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도 견줄 만한 교훈일 듯싶다. 매화를 사랑하는 심미안審美眼은 무성하고 살찐 것보다는 그 가지와 꽃이 드물고 여린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미숙한

것보다는 노숙한 것을, 피어나기 전 부풀어 오르는 그 충만감을 높이 산 것이다.

매, 난, 국, 죽은 그 품성이 군자와 같이 고결하다는 뜻에서 사군자四君子라 하고 이른다. 그 중에도 매화를 으뜸으로 치는 것은 매화의 품격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세종 때의 명신 강희안姜希顔이 지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는 꿈에서 본 매화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내가 매화나무 아래서 즐기고 있었더니 한 사람이 예스럽고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흰옷을 입고 전신이 맑고 깨끗하였다.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니 당신은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나를 알고 하는 이가 누구며, 나를 찾는 이는 또

누구인가? 아마도 당신은 예스럽고  
 질박함을 숭상하여 벼를 삼는 자로  
 다. 나는 성품이 세상 속의 번거로  
 운 곳을 싫어하고 오직 산과 숲을  
 좋아하여 이름을 세속에서 피하여  
 사니, 비록 초나라의 영균(靈均)이라도  
 나를 듣고 알지 못하였다. 죽을 때  
 까지 이름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자취를 감추고 사는 이  
 가 또한 얼마인가. 나는 사실 초나  
 라 굴원(屈原)을 원망하지 않고 송나  
 라 소동파를 원망하고 있도다. 그가  
 공연히 나를 일러 '얼음처럼 차고 맑  
 은 நீ, 구슬처럼 희고 깨끗한 골격'  
 이라고 평하여 나의 자취를 누설시  
 켜고, 제일 좋은 물건으로 나를 지  
 목하였도다. 당신이 만일 나를 이해  
 한다면 저 거칠고 적막한 산수 모  
 통이 세상에서 버려 둔 땅에 같이  
 살고 죽고 할지니라. 그리하여 속세  
 와 가까이함을 면하고 텅 빈 듯, 없  
 는 듯이 살며, 함께 타고난 성품이

나 온전히 하는 것이 어떻겠는고?"  
 내 매형(梅兄) 뜻을 이해하고 "예!"  
 대답하고 꿈을 깨어 기록하였다….

이 매화에 대한 꿈 이야기가 재  
 미있어 나도 이렇게 기록한다. <양  
 화소록> 말미에 '선달 그믐밤에 매  
 화를 대하여'라는 오언절구(五言絕句)가  
 들어 있다.

**매화 옛 등걸에 새봄이 오니  
 맑은 향기 산가(山家)에 넘쳐 흐른다.  
 가물가물 타는 심지 다시 돌우고  
 이 밤을 함께 새는 두 해 된 꽃.**

감로(甘露) 녹차에 매화꽃을 한 송  
 이 따서 띄우면 매화차가 된다. 이런  
 차는 아마도 신선들이 마시는 차일  
 것이다. 1996



##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매화 향기 어찌 얻으랴

글·법 정(法 頂)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을 잘 지내셨습니까? 90일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보리심(진리를 깨달아,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념적인 죽은 화두(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 들어가는 문제)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보리심이 살아 꿈틀거리는 생생한 화두를 통해 수행의 기쁨을 누

리자고 했습니다. 안거 성적표는 각자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눈고장입니다. 그런데 1월 중순께까지도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몇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듯 기설제(祈雪祭)를 지냈다고 합니다. 눈이 안 오면 스키장도 잘 안 되고 봄가물이 심해져서 농사짓기도 어려워집니다. 기설제를 지낸 덕인지 요즘엔 눈이 내려서 강원도다운 풍경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으니 겨울이 완전히 빙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폭포는 빙벽이 되고 개울은 빙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린 눈이 얼음위를 덮어 보호막 역할을 해주어서 개울 바닥은 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들곤 했는데, 올해는 눈이 내리지 않고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만 계속되었기 때문에 개울이 바닥까지 완전히 얼었습니다. 어느 때 같으면 도끼로 얼음장을 20센티미터 정도 깨면 물이 흘렀습니다. 덕분에 물을 떠다 쓰곤 했지만 금년에는 도끼로 개울 바닥까지 파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추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산 지 15년이다 되었는데 옮겨올처럼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못하고 온통 얼어붙은 겨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고 강추위만 이어지는 환경에서 살면 사람이 메마르게 됩니다. 새소리는커녕 전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도끼로 얼음을 깨도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팬스레 팔만 아픕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사니까 하는 수 없이 얼음을 깨다가 녹여서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습니다. 요 며칠은 눈이 내려서 그것을 떠다 쓴 덕분에 힘이 덜 들었지만, 전에는 흐르는 물이 전혀 없고 온통 빙판이어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흔히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례한 표현인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부드럽고 맑고 투명한 물이 한번 굳게

얼어붙으니 도끼로 깨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주변 상황에 의해 한번 얼어붙으면 것처럼 견고해집니다. 모진 마음을 먹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여수心如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 있는 물의 징표이고 생태입니다. 물은 흐름으로써 자신도 살고 만나는 대상도 살립니다. 저는 이번 겨울 새삼스럽게 물의 생태, 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느꼈습니다.

물이 한곳에 갇혀 있거나 고여 있으면 그 생명력을 잃고 급기야 부패하고 맙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 역시 굳어 있거나 어디엔가 갇혀 있으면 온전한 마음이 아

니고 병든 마음입니다. 물이 흘러야 그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마음도 살아서 움직여야만 건강한 마음이 됩니다.

절에서 마음 닦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닦습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면 손으로 문지르거나 걸레로 훑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닦는다는 말은 매우 관념적이고 모호한 표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 쓰는 일'입니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이 곧 수행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삶이 꽃피어 날 수도 있고 딱딱한 벽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 첫머리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

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가령 우리가 생각이 뒤틀려서 가시 돌친 말을 친구에게 던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친구에게 가 닿기 전에 내 마음에 가시가 박힙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실체를 따르듯이.”

이 역시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마음을 냉혹하고 매정하게 쓸 수도 있고, 봄바람처럼 훈훈하고 너그럽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참마음인가는 우리 각

자가 느끼면 압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그것은 나의 본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고 무엇인가 개운치 않다면 내 본마음이 아닙니다.

수행은 어렵게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외기 전에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마음을 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입장과 자기 본위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내 마음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자 대상입니다. 어디에도 걸림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남을 위한 배려이기

도 하지만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건도 대하고,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피십시오. 내가 온전한 마음을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스스로 주시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바르게 써야 바르게 닦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빛이 납니다.

친구를 통해서, 혹은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몇 생에 걸쳐 가족을 이를 인연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서 가족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지내는 가족도 있지만 원수 보듯 서로 미워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중생계의 구조입니다. 마지못해 '싫어, 싫어' 투덜대고 어떤 대상을 미워하며 살게 되면 나 자신이 미워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애를 그렇게 소모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지극히 관념적인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부처나 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부처나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처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을 부처나 보살로 대해야만 우리의 업이 녹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처럼 대하면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 어디선가 또다시 원수가 되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의 소용돌이 속에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진리의 세계를 만난 것은 목은 업을 청산하고 보다 새롭고 밝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갑니다. 화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화를 잔뜩 내면 스스로가 독의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전생에 남들을 힘들게 한 과보를 이번 생에 받고 있구나.’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까닭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사소한 업들이 쌓이고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마음을 돌이켜 풀어버리면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고리입니다.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인과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일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좋은 쪽으로 써야 합니다. 혹시 맺히거나 굳게 닫힌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오늘 해제일을 계기로 다 풀어 버리기 바랍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팎으로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구애되거나 기죽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바뀔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할 때, ‘나를 깨우치기 위해 내 가까이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속지 말고 안으로 거두어들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와 보살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스스로가 부처와 보살이 됩니다.

우리가 절에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자비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송한 사람이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힘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기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활짝 꽃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쓰는 일이고 마음 닦는 일입니다.

황벽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차례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코를 찌를 매화 향기 어찌 얻으랴.”

각자 삶의 현장에서 화창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풀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삶이 향기로워집니다. 추운데 바깥에서 제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2006년 2월 12일 겨울안거 해제 법문 -

##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 좌담회

### ‘법정, 나를 물들이다’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법정, 나를 물들이다”라는 이야기 마당이 길상사에서 펼쳐집니다. 11월까지 다달이 “내가 생각하는 무소유”란 말머리로 이어갑니다. 각계각층의 명사를 모시고 법정 스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스승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려던 지평이 무엇이었는지 짚어 봅니다.

- 3월 22일(넷째 일요일) / 길상사 설법전
- 초청강사 : 최종태 원로 조각가(길상사에 관음상을 모신 조각가)

## 자연으로부터 배우다

글 • 법 정(法 頂)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이런 자연을 가까이 대하면 사람의 마음도 한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워질 것입니다. 자연을 등진 인류문명은 결국 쓰레기로 처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일은 자연을 자연대로 지키면서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캐내는 일이 아닐는지요.

\*

지난밤에는 자다가 깨어 바깥바람을 쏘이고 싶어 나갔다가, 밤하늘에 무수히 돌아난 별들을 바라보면서 황홀한 시간을 가졌었다. 별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변광대한 우주와 그 신비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밤하늘에 이런 별과 달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아득할까. 우리 마음 속에도 저마다 은밀한 별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삶 또한 막막하고 황량할 것이다.

\*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 마음도 그 강물을 닮아

편안하고 맑아진다. 강심에는 아까부터 백로가 몇 마리 선회를 하면서 먹이를 찾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그저 날고 있는지 아주 한가롭게 보인다. 강 건너 기슭에 낚시꾼이 몇 사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허공을 유유히 나는 백로에 견주면 사람쪽이 초라하다. 어째서 같은 사람의 눈에 짐승보다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까. 짐승은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의 일부로 섞이는데, 사람은 그 자연에 섞이지 않고 그 안에서 즐길 줄도 모르고 뭔가를 캐가려고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

별밤을 가까이하라. 한낮에 닳아지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심성을 별밤은 부드러운 눈짓으로 다스려줄 것이다.

\*

우리가 뜰이나 화분에 꽃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그 꽃의 아름다움만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말없는 가운데 삶의 모습과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그 뜻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산중의 가을은 차가운 개울물이 흐르는 골짜기로부터 물들기 시작한다. 어느새 벼랑 위에도 단풍이 들었다. 저 골짜기와 벼랑 위에 진달래가 핀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물들고 있다. 철따라 옷을 갈아입는 산천의 경계를 지켜보면서 인간의 지혜도 자연으로부터 배울 바가 크겠다는 생각을 했다.

\*

꽃은 무슨 일로 피었다가 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때가 다하면 생을 마감하듯이, 생명의 질서에서는 꽃이나 사람이 다를 바 없다. 나무들은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겨울이 오면 옷을 벗는다. 꽃은 보는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향기와 기쁨을 안겨준다. 한 송이의 꽃이 메마르고 녹슬기 쉬운 우리들의 일상에 얼마만한 위로와 생기와 기쁨을 주는지, 운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시로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

꽃이 있는 집과 꽃이 없는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 현격하다. 길거리에서 꽃을 안고 가는 사람을 보면 그 신분이 어떻든 간에 친밀감이 간다. 그 사람의 꽃다운 마음씨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해간다. 뿌리는 대지로부터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보상으로 꽃과 열매로써 대지에 되돌려준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질서요 순환의 법칙이다. 낮은 밤이 받쳐주기 때문에 밝고, 밝은 낮이 비워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둠을 이룬다.

\*

우리는 대지로부터 끊임없이 빼앗기만 하지 아무것도 되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래서 대지는, 서서히 불모의 땅이 되어가면서 죽어간다.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대지도 또한 죽어간다. 왜냐하면 인간은 독립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커다란 생명체와 우리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웅덩이가 이끼로 무겁게 덮여 썩고 있다면, 그것은 강물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강은 잠시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

땅에 떨어지는 낙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맞이한다. 그것들은 삶 속에 묻혀 지낼 뿐 죽음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순간순간 새롭게 발견되어야 할 환출한 뜰이다.

\*

한평생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될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세상일에 묻히거나 밀려, 달이 떠 있는지 마는지 놓치기 일쑤다. 어디 달뿐이겠는가? 철따라 피어나는 꽃도 그저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수가 허다하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을망정, 옛사람들은 자연에 대

한 이해와 사랑과 그 교감이, 온갖 것을 갖추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 우리 곁에 항상 주어져 있는 자연의 혜택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을 모르면 무연<sup>無緣</sup>한 것이 되고 만다.

\*

마른 씨앗을 흙 속에 뿌려놓으면 움이 트고 싹이 자란다. 곡식과 나무들이 여물고 꽃피우면서 열매 맺는 것도 흙의 은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모든 생물은 흙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들은 생명의 바탕인 흙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저버리고 있다. 흙을 의지하지 않고, 그 흙을 등지고 살아가는 생물이 이 지구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이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꿈속에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우리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한 몫이다. 그 소리를 통해서 마음에 평온이 오고 마음이 맑아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소리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곧 자기 내면의 통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생각은 딴 데다 두고 건성으로 듣지 말 일이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무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무심이란 말에조차 매이지 말고 그저 열린 귀로 듣기만 하라. 소리 없이 내리는 비가 메말랐던 마음밭을 촉촉이 적셔줄 것이다.

\*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우주가 별이고 있는 생명의 잔치에 함께하는 일이다. 사람이 착하고 어진 마음을 쓰면 이 우주에 있는 착하고 어진 기운들이 달려온다. 반대로 어둡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지닐 때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음울하고 파괴적인 독소들이 몰려온다. 이런 도리가 또한 커다란 생명체인 자연의 질서요 신비다.

\*

낮 동안 서로 시새우며 으르렁거리던 사람들도, 사소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한 직장의 동료들도, 악의 없이 무심히 뻗은 말 때문에 오해의 벽이 두터워진 사이도, 서격이는 가을바람에 귀를 기울이거나 등불 아래 앉아 삶의 자취를 되돌아보면, 다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갈 일들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

물질만능의 현대문명에서 비롯된 온갖 질환과 오염에서 우리가 헤어나려면 새로운 문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영원한 기댈 곳인 자연을 가까이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조화의 신비를 지켜보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일상의 우리들은 그 강과 대지와 산과 바다, 그리고 나무와 꽃과 새와 바람과 구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조화의 신비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먼산 바라보듯 건성으로 스치고 지나갈 뿐.

\*

입추가 지나면서 밤으로는 풀벌레 소리가 한층 여물어지고, 밤하늘의 별 자리도 또렷해졌다. 뜰에 내다놓은 돛자리에 누워 별을 쳐다보면서, 별과 달이 없다면 밤이 얼마나 막막하고 삭막할까를 생각했다.

별과 달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한낮의 분주한 활동을 통해서 지치고 메마르고 거칠어진 우리들의 삶을 푸근하게 감싸주고, 안으로 정서와 사유의 뜰을 넓혀주는 일도 한다.

\*

한낮의 더위에 기가 죽어 있던 나무나 풀들도 어둠이 내리면, 숲과 강에서 보내오는 서늘한 바람에 생기를 되찾는다. 낮과 밤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게 활동과 휴식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다. 별이 돋고 달이 떠 있는 밤은 우리들 삶의 축복일 뿐 아니라, 허겁지겁 쫓기듯 살아온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

나무들이 가을이면 지녔던 잎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일만이 아닐 듯싶다. 새로운 삶을 가꾸기 위해 묵은 것에 결별하는 소식일 수도 있다. 묵은 것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새 것은 돌아나지 않는다.

\*

있을 떨쳐버리고 빈 가지로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자신도 떨쳐버릴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나무들에 견주어볼 때 우리 인간들은 단순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며, 건강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것 같다. 그저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만 하고, 걸핏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려 하며, 때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꼭 막혀 어리서기 짝이 없다.

\*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관계 등에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이런 일들이 내게는 그 어떤 정치나 경제 현상보다 훨씬 절실한 삶의 보람으로 여겨진다. 새벽 달빛 아래서 매화향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내 안에서든 은은히 삶의 신비가 배어나오는 것 같다.

\*

먼지와 소음과 온갖 공해로 뒤덮인 번잡한 길거리에서, 그래도 철을 어기지 않고 꽃과 잎을 펼쳐 보이는 나무들을 보면 반갑고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 그지없다. 누가 피어나라고 재촉한 것도 아니지만 때가 되니 스스로 살아 있는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 생명의 신비다.

\*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의 느낌이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둘레의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

\*

개체와 전체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거기 이변이 생긴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오늘날의 지구는 온갖 환경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거둬들여 흙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물에 대해서, 따뜻한 햇볕에 대해서, 그리고 공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은덕으로 숨을 쉬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 스님 하루 속히 돌아오십시오

글 • 윤창광

스님.

제가 스님을 처음 뵈는 때가 군사독재 치하였던 1967년 가을 어느 날이었으니 어언 53년 전, 1993년 8월, 스님의 부르심을 받고 <맑고 향기롭게>와 17년, 그리고 스님을 병상에서 마지막 뵈는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 그 기나긴 세월동안 스님과 함께 했던 나날들이 새록새록 그림습니다.

1993년 8월 어느 날 저녁, 스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광사 서울 분원이던 시간동 법련사 납작집 작은 방에 현호 스님, 청학 스님, 동화 작가 정채봉님, 출판인 김형균님, 불교사상사 기자 김자경님, 그리고 저까지 동그랗게 모여 앉았지요.

이날 밤 스님께서는 불쑥 “그동안 얻어먹은 밥값은 하고 가야겠는데…” 하시면서 <맑고 향기롭게>라는 여섯 글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서 내놓으신 여섯 글자 <맑고 향기롭게>. 이 여섯 글자를 구체화 해보라는 게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내리신 스님의 분부였습니다.

번거로운걸 가장 싫어하셨던 스님께서 어찌지고 번거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일까, 의아해 하면서도 저는 그날부터 화두를 받은 수행자라도 된듯이 <맑고 향기롭게> 여섯 글자를 끌어안고 킁킁대며 씨름을 하기 시작했고, 청학 스님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여러 번 받은 두어 달 후에야 제 나름대로 실천 목표를 크게 세 항목,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로 나누어 각각 세 가지씩의 실천 덕목을 정해 이 내용을 정리하여 청학 스님께 전해드렸고, 이 아홉 가지 실천 덕목을 스님께서 그대로 인가하시어 오늘날까지 <맑고 향기롭게>의 실천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임의 소임자를 정하는 자리에서 스님께서는 느닷없이 “본부장은 윤거사가 맡으시오.”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펄쩍 뛰었지요.

“저는 술 마시지요, 담배 피우지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라 맑고 향기롭지 못한 사람인데 감히 어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스님께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소?”

그동안 형편없이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맑고 향기롭게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스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고 그런 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아야 합니다!”

스님의 그 할 한방에 저는 그만 얼굴이 벌게져서 아무 소리 못하고 무릎

을 꿰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맑고 향기롭게 본부장이라는 과분한 직함을 달고 춘천, 대전, 청주, 전주, 광주, 창원, 부산, 대구,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스님을 모시고 다니며 대중법회를 열고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님을 “가까이 하키에는 너무 차카운 스님, 까다로운 스님, 꼬장꼬장한 스님”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가까이서 겪은 스님은 너무 자상하셨고, 따뜻했고, 유머러스하셨으며 소탈하기 그지 없으셨습니다.

산골오두막에 홀로 계실 때 삼시세끼는 제대로 드시느냐고 여쭙었더니, 스님께서서는 “혼자 먹는 밥은 식사도 아니고 급유야. 자동차 휘발유 떨어지면 넣는 것과 같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뒤 스님의 그 모습이 너무 짝해서 제발 이제 시자를 두고 시봉을 받으시라고 간절히 말씀드렸더니, “도를 깨쳐서 인천의 스승이 되겠다고 출가한 젊은이에게 늙은 중 시중이나 들게 해서야 되겠소.”하시면서 끝까지 시자를 두지 않으셨지요.

중앙일보 강당을 빌려 밤에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했을 때 무대에 올라 가셔서 인사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했더니 “허허 이제 늙은 중, 밤 무대까지 뛰게 하네.”하시며 웃으시던 스님. “광주 찍고, 창원 찍고, 부산 거쳐 대구까지 늙은 중 전국 순회공연을 시키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하시면서 웃으시던 스님.

해마다 봄이면 매화 마을에 매화꽃 마중 가셔서 매실주를 택배로 보내주

시던 스님. 폭락한 감자 값에 마음 아파하시며 감자철에는 강원도 감자 상자를 택배로 보내 주시던 스님. 그 많은 원고료 다 누구누구에게 주셨느냐고 여쭙었더니, “그런 것은 알려고 하지마시오.” 손사래를 쳤던 스님.

우리는 언행일치, 두 가지도 어려운데 말과 글과 행, 세 가지가 똑같았던 스님.

대통령이 오찬에 초대해도 사양한 스님.

칼날같은 비평으로 잘못된 세상을 꾸짖고 바로잡아주신 스님.

포근한 자비법문을 통해 고해중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스님.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지혜로운 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스님.

스님! 이제 그만 어린왕자와 연락을 줄이시고 하루속히 길상사로 돌아오십시오.

모두들 목 놓아 스님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님! 하루 속히 돌아오십시오.

---

**윤청광**· 전남 영암 출생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MBC-TV 개국기념작품 공모에 소설 〈未島〉가 당선되었으며, MBC에서 〈오발탄〉, 〈신문고〉, 〈세계 속의 한국인〉등을 집필했다. 그 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부회장, 저작권대책위원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감사,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했고,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법보신문〉 논설위원, 법정 스님이 제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 출판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BBS불교방송을 통해 〈고승열전〉을 장기간 집필했고,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회색고무신〉등의 저서가 있다.

# 꽃은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맡긴다

글 • 작자미상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맡긴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의 소리요

한 가지 꽃의 모습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 발취 : 「산방한담」 한 줌의 재

## 독대의 시절

글 • 고 현

한 달에 두 번씩, 스님은 강원도에서 나는 광주에서 각자 출발하여 ‘맑고 향기롭게’ 연꽃은 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변해버렸지만 그때의 허름한 법련사 골방에서 스님과 함께했던 내 추억의 바다 위에 그 연꽃은 아직도 피어 있다.

가을이 가고 심동(深冬)을 거쳐 다시 꽃샘바람이 불어오던 반 년 동안의 주기적인 밀회. 거듭된 친견에 의미를 두다 보니 제작 과정의 고생이나 왕복 8시간씩 걸리는 당일치기 장거리 피곤함은 내 일이 아니었다. 스님께서서는 버스 여행이 피곤하지 않는지 염려하셨다. 나는 운송 수단인 상대의 시간에다 나를 맞춰야 한다는 기차의 부담감 때문에 10분 간격으로 움직이는 고속버스의 기동성과 자유로움을 지금도 선호한다.

스님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일암 시절엔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화법의 이변이었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그러하셨지만, 늘 깎듯한 존재어 때문에 편치 않았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교수’가 ‘우친’으로 호칭되고 ‘하십시오’가 ‘하케냐’로 내려가고 있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격은 사라져 가고 인간 범정으로 더욱 선명하게 다가 오셨다.

“꽃잎이 좀 많아 보이지 않나? 이 작품은 너무 피어버렸네.”

“.....”

“육바라밀 상징의 여섯 꽃잎은 어딘지 허전해 보이고, 팔정도 상징의 여덟 꽃잎이 역시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군.”

“그렇습니까?”

“고 교수, 색이 탁해서 그런지, 이진 꽃빛깔이 너무 묻혀 보이지?”

“.....”

한 번 뵈릴 때마다 보통 4,5점씩, A4 크기로 일러스트 보드지에, 에어브러쉬 기법으로 작업을 했다.

“3번 작품은 선이 조금 둔탁해 보이고, 1번은 배경색이 좀 무겁지?”

“스님, 그게 보이십니까?”

“이건 좀 소극적이고 수줍어 보이는데? 이봐 우천, 이 연꽃은 대담해서 도 수줍어서도 안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4번은 꽃의 표정은 좋은데 색채가 너무 심각하다. 거 참, 어렵네.”

“.....”

작업이 거듭될수록 역시 무서운 안목이셨다.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의 펼침과 확대의 다름,

맑음과 탁함의 차이, 축소와 생략의 구별, 선의 둔鈍과 예銳, 색채의 어둠 dark과 무거움heavy과 깊이depth의 분별 등 미세한 차이의 감각까지 채집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스님을 뵈를 때마다 그래픽을 보는 날카로운 지적은 역시 당신 문장 수준 이셨다. 그렇게 해서 거듭거듭…… 12월 초, 일곱 번째 시안을 보여드렸을 때였다.

“아, 우천! 이거야 이거! 너무 좋다! 고생했어!”

“나 어지간히 까탈스럽지? 감히 전문가 교수님을 이렇게 부러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이젠 됐어! 이 3번으로 결정하자구. 너무 좋아! 이젠 끝내자구.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 그래, 됐어!”

스님께서는 벽에 비스듬히 세워둔 작은 그림들을 집어서 가까이 보시는 가 하면 다시 놓고 보시고,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그림들을 조심조심 다루며 좋아하시는…… 나는 흥분한 천진불天真佛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스님, 아닙니다. 작업은 이제야 절반쯤 끝났습니다.”

“뭘 절반? 무슨 소리야?”

“제 손에서 끝났습니다만 실용화를 위해 단계까지 마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스님은 처음으로 법련사 공양이 아니라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

했다. 법륜사 주지 스님 청학 스님, 송광사 주지 현호 스님까지 동행하여 인사동 골목 안에 도토리묵을 잘한다는 집으로 안내되었다. 스님께서 매우 흡족해하시는 걸 보고 다시 말씀드렸다.

“스님, 기왕 시작한 일, 마무리까지 관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지에 인쇄된 포스터도 그 수명이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수명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에 5년, 10년씩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글씨체 결정, 캐릭터의 용도별 크기 조절, 뒷면에 들어갈 문안 작성, 종이와 비닐 코팅 여부, 지금 느낌과 인쇄 후 느낌 조절, 캐릭터에 대한 가까운 언론계 여론조사, 인쇄소 지정 및 인쇄 수량 조절 등 결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못 됩니다.”

스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고, 기꺼이 응해주셨다. 물론 내년 봄 창립 준비 때문에 다른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나오실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실용화를 위한 시안 인쇄물을 들고 스님을 계속 독대하다 보니 9월에 시작한 작업이 다음 해 2월까지 이어져 갔다.

그토록 홀로 있기를 고집하셨던 스님을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친견한 인연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때의 스님은 그만큼 맑고 향기롭게에 빠져 계셨다.

당신이 왜 그토록 맑고 향기롭게를 주창하시게 되었는지, 당신이 소망

하신 비움과 무소유의 의미, 웬만큼 밀착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당신의 발효된 지혜, 대상을 직관할 때 드러나는 취모검(吹毛劍)(불성을 뜻하는, 털이 날아와서 붙어도 잘리는 매우 예리한 칼) 같은 분석적 언어, 그리고 당신의 감추어진 내면의 세계나 인간적 느낌까지 나는 스님의 모든 것을 흡습(薰習)하고 있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그 연꽃 캐릭터는 20여 년 전에 스님의 눈길과 마음을 담아 그렇게 만들어졌다. 예술은 식견이 높은 사람보다 감동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스님은 역시 바늘과 우주를 다 가진 어른이셨다. 결코 비범하지 못했던 나의 평범을 당신의 바늘을 통해 깨우쳐주신, 나의 40대 중반은 행복의 절정에 있던 시절이었다.

---

**고현**·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牛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광주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의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해주었다.

## 철부지

글 • 변택주

모든 일은 반드시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일을 그르친다. 하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 마음먹기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배운다. 아니 스스로 세뇌시킨다. 하지만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제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말 가운데 철부지<sup>不知</sup>라는 말이 있다. 철부지란 철, 계절을 모른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철부지라고 부르지만 어른이 되어도 철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언제나 철이 들까?

어린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콩은 언제 심어요?”

“으응, 울콩은 감꽃 필 때 심고, 메주콩은 감꽃 질 때 심는 거여.”

우리는 모든 답이 똑 부러지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답을 들으면 답답해진다. 도대체 어찌라는 것이야? 몇 월 며칠이라고 못 박지 못하고 저렇게 에둘러 말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식목일처럼 4월 5일은 나무 심는 날’ 이렇게 명쾌하길 바란다. 하지만 날은 못 박아 말하는 답이 맞는 답일까? 아니다. 그렇게 날짜를 짚어 말하면 바른 답이 못된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은 그때그때 달라져 비가 많은 해나 가뭄이 든 해에 따라 그 자라는 조건도 많이 달라진다. 해마다 달마다 그때그때 주어진 조건이 다르니 농부는 언제나 날씨와 절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한다. 씨를 뿌리는 때를 놓치면 싹이 트질 않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그것이 몇 월 며칠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봐서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가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연은 농부들에게 말한다.

“제때 일할래, 게으름 피우다 죽을래, 아니면 너무 부지런 떨어다가 죽을래?”

너무 게으름을 피워도 너무 부지런을 떨어도 안 된다. 과녁 중심을 꿰뚫는 화살처럼 정확하게 그때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입에 밥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중도다. 절박하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한 치 벗어남도 용납하지 않는 자연법칙이다.

옛 어머니들은 먼동이 트면 서천에 달이 지기 전에 일어나 그 달이 비친 샘물을 길어 정화수로 삼았다. 비친 달을 길는다 하여 용란龍卵을 길는다고 했다. 이 정화수를 동쪽 담 아래 올려놓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 연거푸 큰 절을 하면서 가족 안녕을 비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아침을 숭상하는 문화가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게 했고 그 아침 나라 다스리는 현장을 ‘조정朝廷’이라 했으며 다스리는 사람을 ‘조신朝臣’이라 했다. 아침 문화 민족 유전자가 바로 한국인 존재 증명인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선조들은 바로 아열대 지방에 맞는 법씨를 들여다 온대기후에서 농사를 지으려니 아열대 지방처럼 빛이 충분하고 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해가 있을 때 부지런히 농사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우리 겨레는 동토 땅 연해주까지 가서 그 추운 지방에서도 벼농사를 지었다. 그 부지런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굽지 않으려면 무엇이든 지 빨리빨리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으름을 피우면 그저 한 끼나 하루를 굶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야 했다. 그러니 굶어 죽지 않으려면 몸이 바스라지도록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된 나라 조선이다.

어느 농부가 남유럽에 갔다. 때마침 가을이었는데 누렇게 물든 황금별판에 벼가 무르익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수확을 하지 않았다. 저러다 서리라도 내리면 어쩌나 싶어 그곳 농부들에게 물었다.

“아니, 벼가 익은 지 오래됐는데 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서리라도 내리면 어쩌시려고.”

그랬더니 그 농부 말이

“서리랴? 서리가 내리려면 한 두어 달 걸립니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놔두었다가 수확을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었다. 사실 우리는 절기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벼가 익기가 무섭게 수확을 한다. 하지만 서리가 늦게 내린다면 벼가 익고 난 뒤 며칠 있다가 수확을 하는 것이 벼가 무르익어 벌레도 덜 타고 맛도 좋다는 사실을 농부라면 누구나 모르

지 않는다. 하지만 쉬이 바뀌는 절기 변화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자칫 서리라도 맞으면 한해 농사가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수확을 하는 것이다.

식물을 기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품이 든다. 자연에는 서두름이라든가 지름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봄에 뿌린 벼씨는 가을까지 자라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자연 절기 흐름은 앞당길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겨레처럼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부지런히 애쓰면 하늘도 감복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노력도 모두 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인가? 역설이지만 철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깨닫는 것은 철드는 일이다.

---

**변택주**· 아둔하고 미욱한 탓에 좀 슬기로워지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 번민하고 사색하여라

글 • 법 정(法 頂)

가야산의 수목은 새잎으로 싱싱해 버렸다. 밤이면 두견이 적막한 산골에 주인 노릇을 하고, 날마다 무더기로 밀려드는 관광객 사태에 산승(山僧)은 또 골치를 앓아야 한다.

그 사이 공부 잘할 줄 안다. 어느새 삼학년! 고등학교 삼학년이라면 결코 순조로운 시기는 아니다. 여러 가지로 번민이 많을 때다. 선택의 갈래 길에서 어쩔 줄 몰라 헤맬 시기니까. 많이 번민하고 사색하여라. 불우한 생활 환경에서 괴로워할 어린 심정을 눈물겹도록 안타까워한다.

세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고해(苦海)(괴로움의 바다)이니라. 그러기에 삼천 년 전 인도의 왕자는 그 호화로운 궁전을 박차고 출가입산(出家入山)하여 일체의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 된 것이다.

중은 가만히 앉아서 목탁이나 치고 염불만 외우는 그런 소극적인 수행자는 아니다. 고행(苦行)이 곧 수행(修行)인 것이다. 죽고 사는 이 고해를 수행의 힘으로써 벗어나는(해탈하는) 것이다.

좋은 책들 많이 읽어라. 춘원님 지은 것은 대개가 (몇몇 통속 작품은 말고) 믿고 읽을 만하다. 내 책장에서 읽을 만한 것을 골라서 읽고 잘 보존하여라. 나프탈렌(옷에 넣는 소독약)을 넣어 두면 좀이 들지 않을 것이다. <원효대사>를 구해 읽어라.

돌아오는 가을철쯤 될 수 있으면 한 번 다녀올까 한다. 어머님이나 할머니께 집안사람들에게 모두들 안심시켜 드려라. 그리고 무슨 일이고 광순 형과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여라. 좋은 형님 노릇을 해 줄 것이다. 성남이, 순애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다. 작은아버지의 건강은 어떠신지?

한 가지 부탁은 책장 오른쪽 서랍 안에 있는 원고지 다섯 권(오백매)만 사종 우편으로 보내 주었으면 고맙겠다. 모든 인쇄물은 사종 우편으로 하면 값(요금)이 헐하니라. 안녕히.

1958년 5월 13일

법정 합장

주소는 해인사로

---

\* 발췌: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법정 스님이 출가 직후 사촌동생인 박성직에게 보내온 편지를 묶은 것이다.

## 생명을 존중하라

글 • 김옥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의 느낌이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둘레의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  
- 법정 -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의 생명을 마치 종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자살 폭탄으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개인적인 불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등 그야말로 무법 에다 무질서가 난무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어떠한가. 연일 터지는 불미스러운 일로 매스컴이 시끌벅적하다. 자신이 낳은 죄 없는 어린 생명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분노로 들끓게 한다.

사람의 생명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천벌을 면치 못할 일이다. 이는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가 하면, 고양이를 무참하게 죽여 길에다 버리고, 남의 집 개를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무엇이랴 할지라도 다 소중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인간의 신성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 법정 스님 10주기 행사 안내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무소유란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으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셨던 법정 스님(1932~2010)의 입적 10주기 기일음력 1월 26일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추모법회'를 시작으로, '법정 스님을 그리다'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특별 좌담회-법정 스님을 물들이다', '전자책 사업' 및 '다양한 공모전과 문화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 봉행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 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법정스님(1932~2010)의 입적 1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법회를 2020년 2월 19일(음력 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성북동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10주기 추모법회 또한 마지막까지 남기신 청빈의 가르침에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간소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추모 법회는 다섯 번의 명종 소리로 시작되어, 삼귀의, 반야심경, 조계종 어산어장 이신 원명 스님께서 종사영반을 집전하시는 가운데 헌향, 헌다, 헌공, 헌화 순서로

봉행하였습니다.

10주기 추모법회에서 법정 스님의 영상 법문은 '2006년 4월 16일 불정기법문-스스로 행복하라'를 편집하여 스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스님과의 옛 추억을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추모 법문, 해충 스님과 윤청광 전 본부장님의 추모사, 문도회 말상좌 덕조 스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창단의 추모헌음과 사부대중이 모두 사홍서원을 끝으로 10주기 추모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모법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길상사 신행단체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 법정 스님 사진전

길상사 내 길상선원에서 2월 18일(화)부터 3월 11일(수)까지 법정 스님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전 스님의 모습을 길상사에서 가까이 사진으로 기록했던 일여이종승 작가와 불일암과 길상사에서 스님의 모습을 기록한 우경 유동영 작가 외 여러 사진 작가가 맑고 향기롭게로 기증해준 사진을 모아 경내 길상선원에 소담하게 전시하여 우리 곁을 떠나신 스님의 생전 모습을 다시 만나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특별 좌담회 ‘법정, 나를 물들이다’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사회 각층의 명사를 모시고 법정 스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스승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려던 지평이 무엇이었는지 짚어 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탈바꿈으로 가파르게 바뀌어 가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날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청 명사로는 서울대 명예교수 원로 조각가 최종태(3월 22일/4째 일), 조계종 백련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4월 19일/3째 일), 최신석 서강대 철학교수 등 2월에서 11월까지 총 10회, 매월 한 분씩을 모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대중과 함께 풀어낼 계획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0달 동안 네 번째 일요일 사시예불 후 오전 11시부터 12시(부처님오신날이 있는 4월만 세 번째 일요일에 한 다.)에 길상사 내 설법전에서 진행됩니다.

###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부처님오신날로 연기)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의 마음을 그대로 모아 양력 입적일(3월 11일)과 가까운 3월 8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무소유를 읽

다’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4월 3일 부처님오신날 길상음악회로 연기하였습니다.

### •법정 스님의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법정 스님의 모든 저작권을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회 임원진은 법정 스님 입적(2010년 3월 11일) 후 2010년 3월 17일 스님의 유언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각 출판사가 보유한 저서의 잔존한 계약기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출판이나 인터넷에 의한 저서의 보급을 할 수 없다.”고 출판사와 협의한 바 있으며, 단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각 출판사가 보유한 저서의 잔존한 계약기간이 모두 종료되었기에, (사)맑고 향기롭게에서는 회원들이 스님의 저서를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책 솔루션’을 구축하여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본회 자원봉사자와 센터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 제작하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4월부터(예상) 스님의 저서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책을 찾고, 구입하고자 중고서점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사무실로 문의전화와 재출간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맞아 본회에서는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화 하여 보관하는 의미로 한편씩 전자책으로 작업하여, 많은 사람들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님의 말씀이 훈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 사진 공모전 및 문화 사업

#### ①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사)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해를 맞아,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합니다.

출가 고향 마을인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 경남 통영 미륵산 미래사, 경남 하동 지리산 쌍계사,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서울 강남 봉은사,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 불일암, 서울 삼각산 길상사에서 수행하는 모습,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 사찰 전통 건축양식 및 자연경관상 등의 소재로 한 사진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 ②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전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문화 행사로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③ 제4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6월 6일 현충일에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④ 법정 스님의 '슬기로운 어린이 동화나라'를 인도 다람살라 티벳 난민 어린이를 위해 티벳어로 번역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 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에 보내어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숲기행 잠정 중단

2020년 3월 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숲기행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잠정 중단 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숲기행을 다시 진행할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관련 내용을 재공지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세심당,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4월~11월 둘째 목요일(11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합니다.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8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길상사 각종 기도 및 법회는 중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휴회합니다.

3월 7일(토) 천수다라니 33독 독송기도는 사중스님들의 기도 및 축원만 하고, 대중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축원 접수는 가능)

매주 진행되는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 교육은 당분간 잠정 휴회되며, 3월 14일(토) 3000배 철야정진도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3일부터 길상사 대중공양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도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도님께서 법당에 참배하실 때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시고, 신도간에 간격을 넓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도록 사중의 모든 스님들은 더욱더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신도님께서 개인 위생 관리 및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와 국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기2564년(202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접수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등(10만원)	도량 연등(3만원)
극락전 가족등	도량 가족등
지장전 영가등	도량 영가등





# 불교입문 / 불교대학 / 경전반

## 2020년 상반기 수강생 모집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20년도 상반기 길상사 불교입문 / 불교대학 /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법사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불교입문

불교입문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인가한 기본교육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발심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불교소양을 갖출  
수 있는 과정입니다.

- 응시자격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강의시간 : 매주(수) 오후 2시~4시
- 강의기간 : 3개월(13주)
- 수 강 료 : 8만원(교재비 포함)
- 강 사 : 덕일 주지스님 및 사중 대중스님들

### 불교대학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인가한 전문교육기관  
으로,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신행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  
하여 불자로서 소양과 덕목을  
겸비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 기본 교육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강의시간 : 매주(목) 오후 2시~4시
- 강의기간 : 5개월(19주)
- 수 강 료 : 학기 등록 20만원(1년 40만원)
- 강 사 : 동명스님, 일중스님

### 불교입문

유마경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서 재가자가 설법의 주체가 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현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의 갈등과 답답함을  
풀어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 : 누구나 수강 가능
- 강의시간 : 매주(화) 오후 2시~4시
- 강의기간 : 4개월(14주)
- 과 목 : 유마경
- 수 강 료 : 7만원(교재비 별도)
- 강 사 : 원영스님

■강의 장소 설법전 ■상담 및 접수 총무소 02)3672-5945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강 날짜가 연기되었습니다. )  
추후 일정은 길상사 홈페이지에 재공지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사전 공지된 ‘**무소유 낭독 음악회(3월 8일)**’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